

LED조명 제조업체 (주)원반도체



대표이사 김두희
02-2626-8955
www.wonban.com

LED조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세계 TOP 3 LED산업 강국 실현'을 목표로 LED산업의 초기시장 창출, 원천핵심기술 개발 및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는 'LED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30%를 LED조명으로 보급하는 'LED조명 15/30보급 프로젝트', LED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 '공공기관의 LED 조명 사용 확대 및 시범사업', '그린휴 100만호 보급사업', 환경친화적 '국방그린타운' 등이 발표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LED 조명 산업계의 자립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약 400여 개 조명업체에서 LED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삼성전기, LG 이노텍, 금호전기 등의 전기전자, IT 대기업들도 여기에 동참, 집중적인 R&D 투자로 선진국 기술수준까지 도달 하는 등 LED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원반도체는 이런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1999년 창업이래 LED의 응용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하여 업계에서 꾸준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업체로 성장할수 있었다고 김두희 (주)원반도체 대표이사의 답변이었다

다양한 원반도체의 제품군

1. 1999년 8월 LED 소자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200종 이 넘는 다양한 제품군의 보유로 업체가 요구하는 제품의 풀 서비스가 가능(예: 신호등용, 풀갈라진광판용, VMS용, 자동차용, CCTV용, 방송용 부대 조명용, 경관조명용, 할로겐램프용, 백열등용, 형광등용, 가로등용, 산업용 진자부품용, 가진진자부품용...)
2. 2001년 RECEIVER MODULE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40종 이 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90%가 넘는 수량은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다. 이중 SMD R/M는 성능이 우수하여 일본 소니의 플레이션 2.3에 적용이 되어 전세계에 원반도체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대만의 BENQ사,중국 최대 가진 업체인 하이얼에게도 납품이 되고 있다.



3. 2008년 1월부터는 원반도체에서 생산된 LED 소자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단일 규모로는 최대 사이즈의 풀칼라 전광판을 병동의 외환은행 본점에 설치함으로써 업계에서 다시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재 대형 풀칼라 같은 경우는 LED소자를 일본의 니짜야에서 수입을하여 국내에서 조립만하여 시공하였으나 원반도체에서는 소자를 국산화하여 업계에서도 이제는 국산 제품도 성능이 니짜야보다 떨어지지않는다는 인식을 각인하여 줌으로서 올해들어 수주가 늘이고 있다고한다. 또한 나중 벌티스겐 제어 방법 및 LED 전광판 장치의 신기술 특허를 2009년 3월 취득으로 풀칼라 전광판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주 합의 중인 대형 전광판이 2분기에만 4건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4. 장관조명기구 제작 및 시공

원반도체에서 직접 생산된 조명등을 가지고 국보급 보물이 있는 남원시 광할루원을 탈바꿈시켜 놓았다. 설치후 타 도시에서 긴박이 계속 이루어지고있다고 공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김원주 전라북도 도지사님의 방문과 원반도체의 우수성을 보시고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주선하여 협의중에 있다.



5. LED 할로젠램프,백열전구

(주원반도체 (대표이사 김두희)는 지난 2008년 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공공부분 LED조명 시범사업'에 참여해 관공서 및 대형 병원의 백열등과 할로젠을 2000여개의 LED 조명으로 교체,설치 사업을했다. (주원반도체의 LED조명은 자연배광에 중점을 두어 설계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효율적인 방열실계 및 자연 빛에 가까운 연색성(90RA 이상)으로 고객사 및 공공기관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두희 대표이사는 "이번 백열등과 할로젠의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인해 연간 약 6,000만원의 비용 및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됐다"며 "국가적으로 LED조명 보급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좋은 LED조명을 널리 알리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조명산업 분야에 한 획이 될수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원반도체의 제품은 소비전력대비 높은 광량과 비광각도가 넓어 빛의 자연스러운 배광을 나타내고 무엇보다 회로적인 문제로 인한 파열이나 주위온도가 85℃ 이상 됐을 경우를 대비해 안정장치(PROTECTOR)기능을 추가했다. 김두희 대표이사는 "LED조명 시장이 급속도로 커져가고있어 모든 기업체들이 관심과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투자에 비해 관련 인력이 부족해 불안정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현실"이라며 "안정적인 LED 시장 보급,확대를 위해 국가적으로 LED 관련 기술 교육 및 인세육성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할로젠용으로 16종, 백열등용으로 4종류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안등 및 공원등용은 30W, 50W, 60W, 98W, 110W, 150W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및버스 실내용 독서등 및 룬등도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6. LED라이팅 패널 및 시내버스 행선지 LED 장치 설치

서울시 시내버스에 행선지를 쉽게 알아 볼 수있게 하는 '행선지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표시장치' 사업이 경기도에서 이번에는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되어 올해 약 5,000대에도 장치가 적용 할것이고, 버스 승강장에도 LED 라이트 패널이 설치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LED산업을 녹색성장의 한축으로 선언한 만큼 LED를 통한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는 만큼 (주원반도체는 2011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불철주야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모두 LED를 시작했습니다. LED가 세계 조명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김두희 대표는 말한다. 일본의 경우 산요나 도요나,마쯔시다 등이 LED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삼성과 LG이노텍,효성,일진,삼보컴퓨터... 등등이 미래주력사업으로 LED를꿈고있다. 이들과 경쟁을하여 이길려면 "정부의 LED지원 정책에 만 관심을갖고 단순히 보급하고 파는데만 의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설치된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다시 LED제품을 소비자들 이 찾고 그런 제품만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있는 상품" 이 될 것이라며 국내 LED업체의 신뢰성 제고를 주문했다.

지난 3월부터 정부는 LED제품에 4종에 대해 KS인증마크제를 시행하고 있다.세계최초로 시작된 KS인증마크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신

뢰성 등을 향상시켜 (주원반도체는 물론 LED업체의 활성화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LED의 빛처럼 밝고, 환하게 비쳐지기를 바란다.



| 기술표준 2009.5